

# 파계맨 갈마·작법따라 제재

##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4>

계율을 지키는 것은 도덕적 소양을 계발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최고의 봉사이기도 하다. 불교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오계를 지키지 못하면 불교인으로서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불자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계를 받고 계를 배우는 목적은, 계를 지키는 데에 있다. 만일 계를 배우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입으로 밥을 말하듯만 하고 남의 보물을 헤아리는 것과 같다. 계율에 대한 알음알이만 넓혀서 한갓 애깃거리로만 삼는 다든지, 혹은 저 스님은 계를 범했어, 법도에 어긋난다 등 비평만 일삼는 것은 불자의 도리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절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다. 절 집안의 크고 작은 애깃거리들은 대부분 불자들로부터 나온다. 좋지 않은 일을 재미삼아 들먹이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붙는 격이라 나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이면에는 오히려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다. 사람들이 이런 입장에

것이다. 참으로 계율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험담으로 계율을 범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이 계율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은근히 세 번까지 권고하여야 한다. 세 번의 권고와 충고를 하여도 계를 범한 자가 고집을 부리며 듣지 않는다면, 율장에 정해진 대로 거기에

"저 사람도 계율을 범했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험담으로 계율을 범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이 계율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은근히 세 번까지 권고하여야 한다. 세 번의 권고와 충고를 하여도 계를 범한 자가 고집을 부리며 듣지 않는다면, 율장에 정해진 대로 거기에

엄격한 구분이 있다는 것이다. 죄를 들출 때도 비구는 7종(衆)의 허물을 모두 드러낼 수 있지만 비구니는 비구를 제외한 6종(衆)의 허물만 드러낼 수 있다. 출가 대중은 재가자의 허물을 드러낼 수 있지만 재가자는 출가 대중의 허물을 드러낼 수 없다.

이는 부처님께서 비구만을 보호하려고 제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비구는 일체의 계율을 연구하여 일체의 사람들과 대중을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어야 하며 대중은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구니는 비구계를 연구할 수 없고, 재가자는 대계(大戒, 비구·비구니계)를 남용하는 것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범계를 지적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출가인에게는 출가인에 대한 승단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출가인이 계를 범하더라도 재가자는 출가인의 죄를 드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 권고하거나 충고하는 것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허물을 들추기 보다는 스스로 계율을 지키라는 것이다.

계율은 불법의 생명이라고 출가자는 출가인의 계율을, 그리고 재가자는 재가자의 계율을 목숨처럼 소중히 하여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깨달음의 꽃도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것이다.

(해인총림 율원장)

### 범계

## 계율 범하는 자 보면 세번까지 권고 재가자는 출가자 허물 들추면 안돼

서 서로 허물을 들추다보면 결국 청정한 불자는 하나도 없는 셈이 되고 만다. 이것은 불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불자들의 신심을 상하게 한다. 더 나아가면 삼보의 존엄성이 손상되고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불자들이 계율을 잘 배우고 지키려면, 설사 계율을 범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말하거나 어지럽게 공격하는 일은 없을

수용하는 갈마와 작법(승단의 회의 제도)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승계(誦戒) 포살을 할 때에는 그를 위하여 죄를 들추어내어 대중의 뜻으로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어떤 범계 행위라도 본 대로만 말해야 한다. 본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는 절대로 안 된다. 또한 이 경우에는 계를 범한 자의 신분도 개의치 않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계를 범한 자가 고한 계를 하나 더 범한 것이 된다.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고, 삼보를 비방하는 이 세 가지 계는 모두 무거운 계(重戒)로서, 재가자와 출가자를 막론하고 가장 무거운 범칙인 바라이죄(波羅夷罪)를 범하는 것이 된다. 바라이죄는 계체(戒體)가 소멸되고 죽은 뒤에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큰 죄이다.

그런데 불교 교단의 계율에는 차제가 있다. 이른바 신분상으로

# "반드시 깨닫겠다는 보리심을 내십시오"

오늘은 보리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루고자 하는 공덕의 목표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룬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범부 중생으로 머물러 율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은 깨달고자 하는 서원입니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의지를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따라 부처와 범부 중생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원을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보리심은 세간의 재물이거나 명예처럼 다른 것들과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리심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와 목표가 허망하고 헛된 것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지혜를 얻기 위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남자여, 손에 부스럼이 난 사람이 독약을 잡으면 독이 따라 들어가지 않나. 부스럼이 없는 사람에게는 독이 들어가지 않나. 부스럼이 나 함은 위없는 보리의 인연이요, 독이라 함은 가장 뛰어난 묘약이니라”

부처님은 진리의 가르침을 독에 비유하면서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독을 잡았을 경우, 상처가 없는 사람에게 독이 스며들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절에서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절에서는 돈 잘 버는 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출세하는 길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는 차라

리 시간 날 때마다 증권을 사고 팔다가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요즘 말로 '정말 영양가 없는' 것일 겁니다. 육신내고 아종바중 살아도 모자랄 판에 '육신을 버려라', '어려운 사람을 돕고 보시하라' 등의 부처님 말씀은 그야말로 '일생에 도움이 안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보리심을 낸 사람들은 재물이거나 권력, 명예를 위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 자비나 봉사를 하는 손 해보는 것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스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도 보통 큰 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참다운 인간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보리심을 내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독'을 끼게 받아들이어 야만 합니다. 깨달음을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과 지혜에 비하면 세간의 헛된 가치들은 쓰레기라고도 같습니다. 쓰레기를 위해 금강석과도 같은 깨달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보리심을 내는 순간은 독약과도 같이 쓴 맛이지 모르지만 일단 부처님의 광명을 맛 보면 감로보다도 더 달콤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리심을 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재가신도들에게 '남에게 베풀어라(施論)', 청정하고 바른 생활을 해라(戒論), 청정하고 바른 생활을 태어나 즐거움을 받는다(生天論)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 속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불자들이 모두가 이 법회에 반드시 깨달음을 얻겠다는 보리심을 발하시길 기원합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법회중계

봉은사 일요법회  
(2000년 1월 30일)



원혜스님  
(봉은사 주지)

## 재물 권력 명예보다 자비 봉사하는 삶이 참다운 인간의 길

## 26개대학 인도학과 개설

독일의 대학에서 불교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인도학과'인데, 현재 인도학과를 개설해 놓고 있는 대학의 수는 26개이다. 이 수는 70년대에 17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대단한 약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약진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가 독일의 수도 본을 방문했던 1973년을 기점으로 20여년 동안 독일의 불교학은 놀랄 만한 성장을 거듭했던 것이다. 1995년 독일 정부의 인구조사에서 4만여 명의 독일인들이 자신을 불교신자로 분명히 밝혔던 것도 이 같은 성장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 세계의 불교학(4) 독일-3

Gesellschaft in den Lndern des Theravada Buddhismus)는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정치와 국민 의식에 미친 불교의 영향을 연구한 것으로, 고대 경전만을 연구하는 틀에

교학계의 석학으로 꼽히는 에르니스트 스타인켈러(Ernst Steinkeller) 교수가 이 곳에서 후학들을 양성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활동은 80·90년대 독일의 대학에서 운영



◇독일불자들과 담소를 나누는 14대 달라이 라마.

## 74년 달라이 라마 방문후 급신장 함부르크·뢰팅엔대등 연구 주도

서 벗어나 아시아 불교국가의 당면 문제를 연구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 시작한 불교학 연구가 이제는 아시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1966년부터 불교 연구 전담 교수직을 두었던 함부르크 대학의 불교학 연구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이 대학의 프란츠 요셉 베르나르드(Franz Josef Bernard) 교수는 두 권의 법집요송경을 출판했는데, 불교를 토대로 한 중국학 연구의 시원지로 평가되고 있다. 빈 대학에서는 1974년부터 불교학과 티베학을 각각 개설했으며, 독일불

했던 세미나와 연구소에서 '불교'와 관련된 시간을 배경하고 또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에 충분했다.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1996년 인도학과 관련된 세미나를 찾아보면, 오스칼 본 하이누버(Oskar von Hinuber) 교수의 '부처님 생애'와 '불교와 산스크리트어'를 주제로 한 강좌가 마련됐다. 본 대학에서는 1996년 보겔(C.Vogel) 교수와 아인펠(D.H.Eimer) 교수 등이 <장아함경(Dighanikaya)>과 <법화경(Saddharmapundarika)>을 주제로 각각 여름 세미나 강좌를 개설했다. 1996년부터 벡헨트(H. Bechert) 교수의 '인도학·불교학' 연구 방법론이 소개됐던 뢰팅엔 대학에서는 뢰팅어, 상할리어, 미얀마어 등 불교국가들의 언어와 그 곳의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이외에도 막스 뮐러(Friedrich Max Müller, 1823~1900)의 <동방의 성서( Sacred Books of the East)>에서 시작된 비교종교학을 비롯 심리학, 철학 등 인문학 분야에서 불교 경전은 빼놓을 수 없는 텍스트로 자리잡아 갔다.

이 분야의 기본 저서로는 루돌프 오토(Rudolf Otto, 1869~1937)의 <성스러운 것>, 프리드리히 하이어(Friedrich Heiler, 1892~1967)의 <불교 삼매>, 구스타프 멩칭(Gustav Mensching)의 <불교의 정신적인 세계>, 에크하르트(Eckhart)의 <독일의 법사들> 등이 있다. 특히 에크하르트의 저술에 나타

난 종교적 체험은 비교종교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내 의식이 확 뚫렸을 때, 나는 하나님과 피조물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나이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로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에크하르트의 지적은 모든 중생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불성 사상을 다룬 바

이다. 이와 같이 독일의 불교학은 풍부한 원전을 토대로 번역 작업과 판본간 비교 그리고 사전 편찬 등의 성과를 쌓아가며 불교의 사상과 문화를 체계화했다. 또 이같은 성과에는 인도학이 개설된 대학들끼리 교류를 확대해 연구 주제의 중복을 막는 등 '열려있는 사고의 틀'도 한몫 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 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 집을 다스림)·치국(治國: 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 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 건강과 장수)·둘째 부(富: 부와 귀)·셋째 강녕(康寧: 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 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 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술소소정액(松素素精液)」, 「술선식(松仙食)」 등 「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물계 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 불로화정(不老化精)



신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기(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퍼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대구여래원

## 의료법인 태영의료재단 효성양방·한방병원 안내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자금과 불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본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 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골(靈骨)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효성양방·한방병원 전경

정신병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무료로 치료해 드리고자 하오니, 전국의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의료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 실버타운 분양안내

구분	금액	비고
2인 1실	각 20,000,000원	전세
1인 1실	30,000,000원	전세

신축순 104실 / 매월 식대 400,000원(개인부담)

## 불로화정본포